

ISBN 979-11-990487-6-8

비매출 | 무료



9 791199 048768

92910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scribed in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scribed in the World

6	프롤로그 - 혁명의 기록을 세계에 새기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순회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도록입니다. 2 수록된 자료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자료명, 편저자, 간행 연도, 크기(가로×세로cm), 소장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국가유산 지정·등록 정보 3 순회전시는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남원다움관 순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과 관련된 특정 출판 자료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4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자 표기는 당시 사용하였던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4	1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24	2 협치와 상생의 기록 - 집강소를 세우다	
38	3 자주와 향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48	4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	
68	에필로그 -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다	
70	칼럼 1 민주, 평등, 인권 향한 민주주의 정신의 기억 저장소 이병규 2 전시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조한빛 3 교육체험: ‘1894 기억 저장소’, 나의 오늘을 기록하다 김지연	* 이 소도록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순회전을 열며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전 인류가 공유하며 지켜내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이 된 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모두 185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억의 저장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지향하였던 인간 존중과 평등, 정의와 인권, 자주와 평화 등은 오늘날까지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4부에 걸친 구성으로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3부 자주와 향전의 기록,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입니다. 이번 순회전을 통해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고, 전 인류와 함께 할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롤로그

-혁명의 기록을 세계에 새기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

유산(Heritage)에 대한 유네스코의 정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992년 보스니아 내전 중 발생한 국립도서관 파괴 사건을 계기로 기록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유네스코는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 수단을 찾기 위한 대책으로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사업을 시작했다.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사업 수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가 개최되어 사업의 틀과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1995년 등록 기준을 비롯하여 이행과 관련한 운영지침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면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재가 이루어졌다.

기록유산의 정의

기록유산이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및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단독 기록뿐 만 아니라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도 포함하고 있다.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세계기록유산의 목적

-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의 적절한 보존
- 접근성 강화
- 기록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증진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기준

진정성 Authenticity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독창성 및 대체불가성 Irreplaceable	- 기록 유산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 특정 기간 또는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계적 중요성 World significance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세계적 중요성에 대한 기준은 5가지로 구분되며, 그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1) 시간(Time)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 시기를 현저히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2) 장소(Place)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3) 사람(People)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4) 대상/주제(Subject/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5)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뛰어난 미적·형식적·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보조 요건	희귀성(Rarity) 독특하거나 희귀한 경우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협(Threat) 해당 유산이 각종 위협 요소에서 안전하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25년 기준		
1	훈민정음	1997
2	조선왕조실록	1997
3	직지심체요절	2001
4	승정원일기	2001
5	조선왕조 의궤	2007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7	동의보감	2009
8	일성록	2011
9	5·18민주화운동기록물	2011
10	난중일기	2013
11	새마을운동기록물	2013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2015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
15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017
16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17	4·19혁명기록물	2023
18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023
19	산림녹화기록물	2025
20	제주4·3기록물	2025

©국가유산청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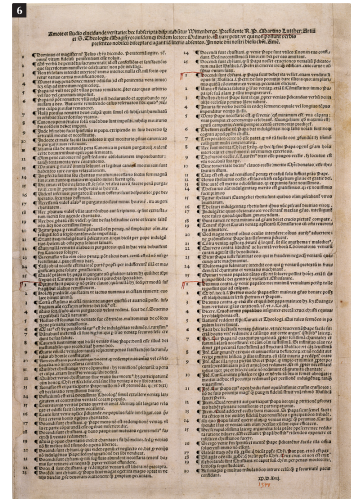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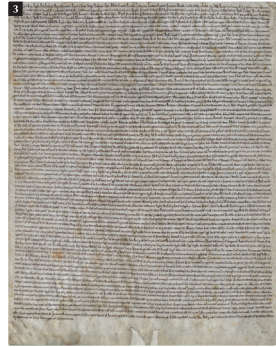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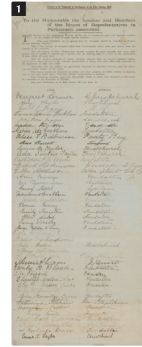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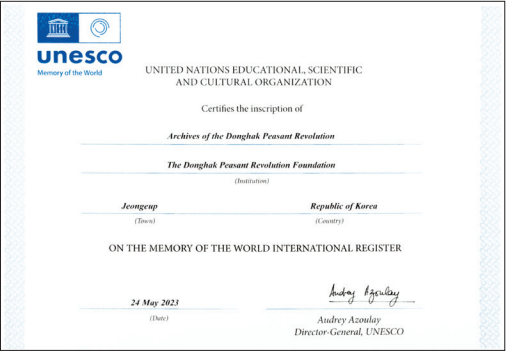
민주·평등·인권의 가치가 담긴 세계기록유산

- 1893년 여성 참정권 탄원서
The 1893 Women's Suffrage Petition
1997, 뉴질랜드
뉴질랜드기록보관소
-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
(1789, 1791)
Origin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 1791)
2003, 프랑스
프랑스국립고문서관, 프랑스역사박물관
-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issued in 1215
2009, 영국
영국국립도서관, 링컨대성당, 솔즈메리대성당
-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권 투쟁 및 저항
(1930~1961)에 관한 기록유산
Documentary Heritage on the Resistance and Struggle for Human Rights in the Dominican Republic, 1930~1961
2009,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저항운동기념박물관기록자료센터
- 발트 방식 - 자유를 찾기 위해 3개국을 연결한 인간 사슬
The Baltic Way - Human Chain Linking Three States in Their Drive for Freedom
2009,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국가기록보관소
-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
Documents representing the beginning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2015, 독일
불편비델라우구스트공작도서관, 작센주립도서관 등



©UN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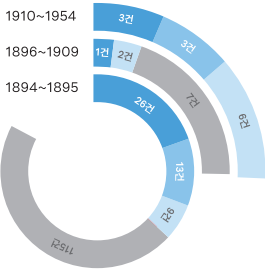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에서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기하였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총 185건의 문건이다.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등 기록 주체에 따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2023. 5. 24.

생산 주체별 구분

-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기록물
-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
- 동학농민혁명 건문 기록물
- 조선 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



	소장기관	건수(건)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8
3	고려대학교 도서관	29
4	천도교 중앙총부	9
5	국가기록원	5
6	국립중앙도서관	5
7	국사편찬위원회	5
8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3
9	독립기념관	2
10	한국학중앙연구원	2
11	국립고궁박물관	1
합계		185

등재 추진 경과

* 문화재청 (國 국가유산청)

2015. 6. 2.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출범	
2015. 8.	소장기관 기록물 등재 동의서 작성	
2015. 8. 31.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 신청서 제출	기념재단 → 문화재청
2015. 11. 25.	등재 선정 대상 제외	문화재청
2016. 9. 22.	선정 제외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념재단 → 문화재청
2017. 5. 12.	등재 신청서 제출	기념재단 → 문화재청
2017. 6. 28.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문화재청
2017. 11. 10.	등재 신청서 수정안 제출	문화재청 → 유네스코
2018.~2021.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도 개선 논의	
2021. 4.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재개	
2021. 11. 30.	등재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 → 유네스코
2023. 3. 8. ~ 3. 10.	제1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정기회의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23. 3. 11.	등재 권고 결정	IAC 임시회의
2023. 5. 18.	등재 결정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프랑스 파리
2023. 5. 24.	등재 인증 확정 발표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조선 후기 봉건적 질서 하에서 거둬되는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투로 피해해진 백성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였던 모습이 담긴 기록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무장포고문

천도교 중앙총부



취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석남역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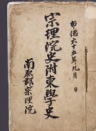
순교약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남원 종리원사 부 등학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 공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 봉건적 사회질서 아래 여러 주체가 각각의 관점으로 시대의 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신분과 빈부 등의 차이
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거둬지는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투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피해는 극심
해졌다. 고조되는 사회의 모순과 의식의 성장은 소극적 저항을 넘어 보다 적극적 저항인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
꾸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은 전근대적 봉건주의 사회
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사발통문

沙鉢通文

Bowl circular letter

동학농민군 | 1900년대 | 42×30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이 자료는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에 거주하는 송준섭(宋俊燮) 집 마루 밑에 묻혀있던 족보에서 나왔다고 한다. 1974년 6월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나라사랑』15집, 『녹두장군 전봉준 특집호』). 김용덕은 이 문서가 진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판정을 보류했다. 결의사항 중 ‘경사로 직할할 사’를 용인할 수 없어서였다. 1980년대 중반 정창렬은 사발통문을 4부분으로 나누어, ‘계사 11월 일’에서 ‘각리리집강 좌하’까지 ㉔ 부분, 서명자 20명, 이후 민심의 동향(㉕), 도인들의 선후책 토의(㉖), 결의 이후 영도자를 뽑는다는 것(㉗)으로 구분하였다. ㉕의 경우 서명자 집단 내부만의 기밀 사항으로 ㉕의 통문이 고부 지역 전역에 유포되지 않았던 점을 의문시켰다. 다만 ㉕의 결의를 수행한 세력을 금구취당과 연결시켜 거사 계획이 전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1985). 한편 인용하는 1차 동학농민전쟁의 단계로서 3월 무장기포를 중시하면서 통문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그는 통문 본 내용이 잘려 나갔다는 전제하에 계사년의 등장(等狀), 이듬해 갑오년 1·2월의 고부민란, 3월의 제1차 농민전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통문 ㉕와 ㉗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장의 종이 위에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당시 통문의 원본(原本)이 아니라 어떤 분이 작성한 회고록(回顧錄)의 일부라고 추정하였다(『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993). 두 연구자는 통문 내용 중 ㉕의 앞부분과 ㉕의 결의사항이 처음부터 동일한 차원에서 결의되었다고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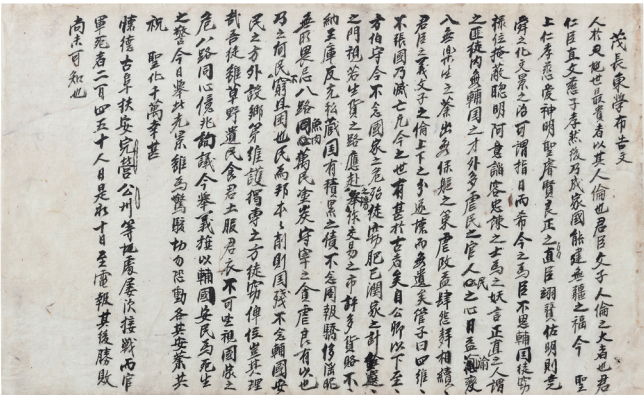
사발통문이 진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통문 내용과 4가지 결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밝혀야 한다. 통문의 잘려진 앞부분 내용이 4대 결의와 상관없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 고부군 각리 집강에게 모임을 갖자는 통지이며, 다만 서명자들의 사인이 동그렇게 된 것은 민회 소집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한 조치였을 뿐이었다. 실제 전봉준은 자신이 처음에는 주모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중민 수천 명으로 추대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전봉준 공초』초초문록). 1893년 12월 전봉준은 60여 명의 고부 농민과 함께 전주 감사 김문현에게 폐정을 시정해 달라고 등소(等訴) 운동을 벌였다. 고부 농민들은 감사에게 거절당해 쫓겨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을 것이다. 따라서 1893년 11월 말 민회 개최를 위한 통문을 낸 이후 등소 운동이 실패하자 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가에 모여 4가지 방침을 새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보아야 고부농민봉기 과정의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다.

무장포고문

茂長布告文

Manuscript of the Declaration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Mujang

동학농민군 | 1894년 | 36.5×21cm | 천도교 중앙총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무장에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포고문이다. 대략 400여 자의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원본 혹은 누군가 필사한 것을 다시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의 생생한 현실 진단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왕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궁경대부 이하 방백 수령들이 가혹한 정사를 펴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동학농민군들은 비록 자신들이 시골에 사는 평범한 백성(草野遺民)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의기(義旗)를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스스로를 ‘보국안민’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었기에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가시화하자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취어

聚語

Documentation of the Assembly at Boeun 1893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조선 정부 | 1895년 | 15×26.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3년 보은집회와 189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건을 모아 수록한 책이다. 창회의 목적이 담긴 동학교단의 방문(榜文), 통문(通文) 등과 함께 보은집회 당시 보은관아에 통고(通告)했던 기록, 무장현 동학도들의 포고문(布告文), 어윤중의 효유문(曉諭文), 임금의 칙유문(飭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크게 진전된 민권의식은 물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대정신이 전해진다.

석남역사

石南歷事

Memories of Bak Mun-gyu

박문규朴文圭 | 1951년 | 18×21.5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하여 진라도 고부군 이평면 장내리 석치마에 거주했던 박문규(朴文圭)가 자신의 개인사를 73세(1951년)에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하여 자손에게 남긴 문집이다. 고부농민봉기 발발 당시의 상황, 황호현 전투 및 직후 고부지역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동학농민군에게 적대적이었던 관공이나 유림 측의 기록이 아닌, 동학농민혁명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민간인이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더구나 저자인 박문규가 전통준의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운 제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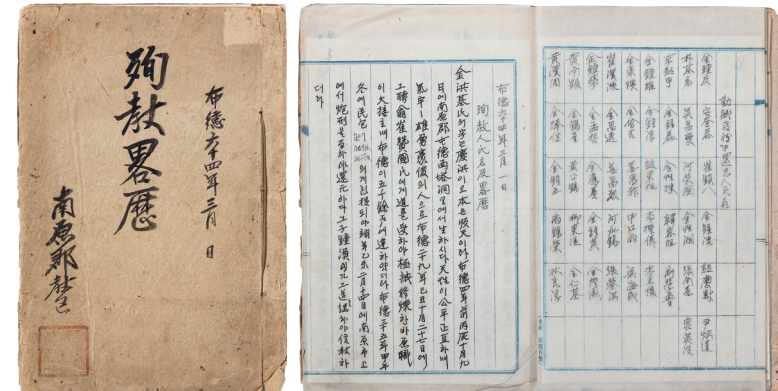
순교약력

殉教畧歴

Records of Those Who Perish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최병현崔炳鉉 | 1923년 | 16×24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23년 3월 남원군 종리원(중앙과 지방에 있었던 천도교 사무 행정 기관) 소속 주임 종리사 최병현(崔炳鉉)이 기록한 책이다. 순교인(殉敎人) 41명과 환원인(還元人) 47명에 대한 약력(略歷)이다. 당시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전후 상황은 물론,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성명·출생·거주지·동학 입교 시기·지위·활동 내용·체포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순교인(殉敎人)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그 직후 체포되어 처형된 인물

환원인(還元人)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교단 내에서 활약하다가 사망한 인물

남원 종리원사 부 동학사

南原宗理院史附東學史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최병현崔炳鉉 | 1924년 | 17×24.5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24년 9월 전라도 남원군 종리원(중앙과 지방에 있었던 천도교 사무 행정 기관) 소속 주임 종리사 최병현(崔炳鉉)이 1894년 당시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태홍(柳泰洪)의 구술을 기록한 책이다. 이 자료는 1861년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 사건까지 44년 동안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1894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개남이 남원에 5영을 설치한 사실, 전봉준이 운봉(雲峰)의 박봉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해 민보군을 해산시킨 사실과 김개남과 8일간에 걸쳐 논쟁을 벌인 사실, 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된 11월 방아치 전투, 11월 28일 남원성 전투 이후 살아남은 동학농민군 500명이 유태홍을 따라 순천으로 향하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봉준 공초

全奉準供草

Interrogation Record of Jeon Bong-jun

법부 | 1895년 | 21×30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고 지도자 전봉준을 심문(審問)한 기록이다. 원래 공초(供抄)라고 되어있어야 하나, 공초(供草)로 표기되어 있다. 기록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국한문혼용체와 한문체로 되어 있다.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6차례, 주한일본공사관과 법무아문 법정을 오가며 이루어졌다. 6차례 공초 기록 가운데 1차(초초문목, 2월 초9일): 전봉준의 개인 신상과 동학과의 관계, 봉기 원인과 전개과정(고부농 민봉기, 재차기포, 전주기포 등), 2차(재초문목, 2월 11일): 동학 조직과 역할, 재차 기포와 소모사, 최시형 등과의 관계, 3차(3초문목, 2월 19일): 흥선대원군의 효유문과 관련하여 송희옥과의 관계, 2차 봉기 모의 연계 가능성, 4차(5차문목, 2월 19일): 흥선대원군 효유문과 모당 효유문을 사전 인지 여부, 5차(4차문목, 3월 초7일): 집강소 설치과정, 삼례 회동과 문서 대필 문제 재론(마지막 편철에 위치), 6차(5차문목, 3월 초10일): 최경선, 송희옥 등과의 관계 재추궁(3초문목 다음에 위치) 등이 수록되어 있다. 2차 봉기는 외국과의 통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정치·군사적 침략 사실을 질책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밝히고, 백성들을 위한 민주주의 개혁, 합의법에 의한 정치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이 공초는 1895년 3월 29일 임시 권설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선고서」의 근거자료가 되었다.

협치와 상생의 기록 - 집강소를 세우다

집강소라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동학교단 내에서도 포접제를 운영하며 여러 직책을 부여하는 등 협치와 상생을 도모하였던 모습이 담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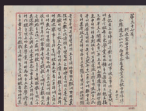
동학사(초고본)

국사편찬위원회



전봉준 판결선고서 형사재판원본 1895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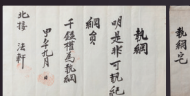
계초존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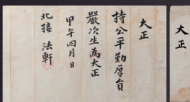
천일권 집강 임명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엄차생 대정 임명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성영 접사 임명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명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나주 명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함평 갈등 명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재빨리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냈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조선 영토가 청일 양국의 전쟁터가 될 위기에 대응하여 관군과 '전주화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은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은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관민상화(官民相和)'에 합의하고,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집강소라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협치와 상생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신선한 민주주의 실험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사례였다.

* 거버넌스(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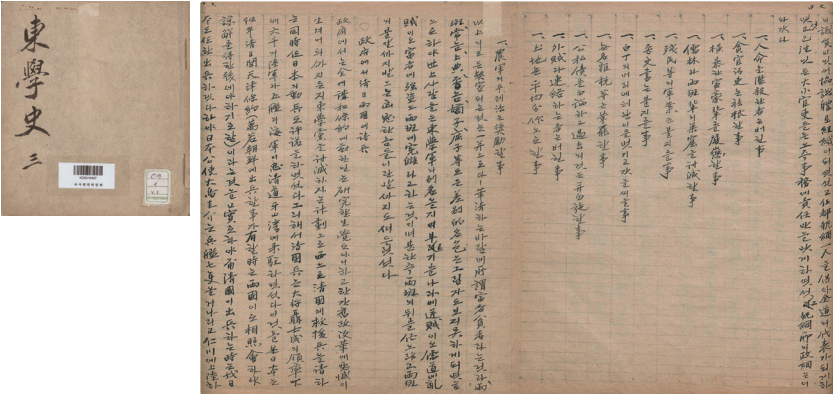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동학사(초고본)

東學史(草稿本)

Donghak History(Draft Version)

오지영吳知泳 | 1926년 | 18×26cm | 국가편찬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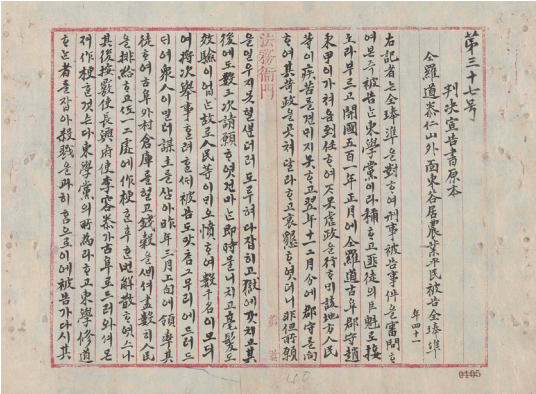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던 오지영(吳知泳)이 동학교단 및 천도교의 역사를 다룬 서적이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하여 현재까지 국가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4책으로 19세기 후반 정세 분석, 고부농민봉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894년 5월 동학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이루어진 전주화약에서 체결된 폐정개혁 12개조에 대한 서술이 주목할 만하다.

전봉준 판결선고서 | 형사재판 원본 1895

全琫準判決宣告書 | 刑事裁判原本 1895

Sentencing of Jeon Bong-jun | Criminal Court Records 1895

법무아문 | 1895년 | 19×28cm | 국가기록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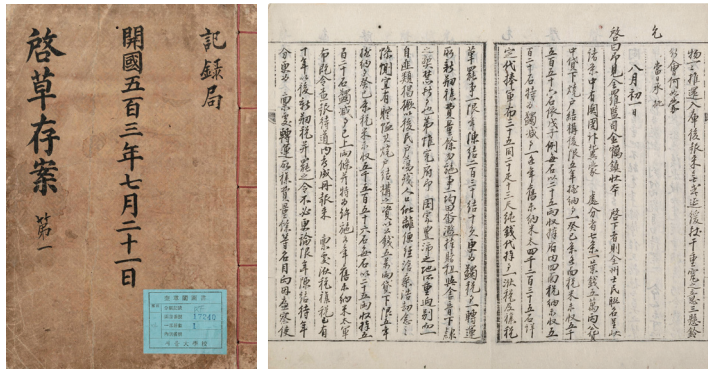
조선 정부에 체포되어 처벌받은 동학농민군 다수에 대한 재판기록인 「형사재판 원본(1895)」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순화증, 성두한, 이방언, 김덕명, 황하일, 홍낙관, 임기준 등의 판결선고서를 찾을 수 있다. 전봉준의 판결선고서를 통해 동학농민군의 지향과 인식은 물론, 27개조 폐정개혁안 중 14개조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계초존안

啓草存案

Summary Document of Reports Submit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의정부 | 1894년 | 20×29.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상계(上啓)된 것을 의정부 기록국이 날짜별로 모아 정리한 것이다. 각 도 감사(監司), 찰리사(察理使), 안핵사(按覈使), 선무사(宣撫使) 등이 작성한 장계(狀啓)·첩보(牒報)·내전(來電)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청일전쟁에 참여한 청병이 지나가는 고을에서 수령이 양초우마(糧草牛馬) 등을 민간에서 징발하는 것을 금지한 일,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전라우수영 근기와 공전을 빼앗아 간 일, 각지 상황 및 경상도 성주·예천과 전라도 남원 일대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탐문한 일 등이다. 또한 1894년 8월 1일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의 장본을 통해 전주사민들이 연명으로 올린 소장 내용 중 국계(國計 국가경제)에 관련되는 7개조, 경상감사 조병호(趙秉鎬)의 「구폐제조별단(救弊諸條別單)」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감사(監司) 조선 시대, 각 도의 으뜸 벼슬

찰리사(察理使) 군무(軍務)를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벼슬

안핵사(按覈使) 조선 후기, 지방에서 발생하는 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선무사(宣撫使) 큰 재해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 왕명을 받들어 재난을 당한 지방의 민심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동학 임명장》

동학 임명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최시형의 동학교단과 전봉준의 동학농민군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동학교단 조직은 접(接) → 포(包) → 동학교단의 체계인 포접제(包接制)로 운영되었다.

가장 기본 조직인 접(接)에는 접주(接主)와 접사(接司)의 직책이 있다. 접주는 접의 책임자로서 교도를 관리하고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 주요한 임무이다. 접사는 접주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접을 관리하고 통할하는 조직이 포(包)이다. 포의 책임자를 대접주(大接主)라고 한다.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등은 바로 이러한 대접주로서 많은 접을 거느린 포의 책임자였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봉기한 지도자들은 대개 이러한 대접주들이 대부분이었다. 대접주는 여러 접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육임직(六任職)이다. 육임이란 교장(敎長), 교수(敎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을 말한다.

교장(敎長)

알차고 덕망있는 사람

(實望望厚員爲敎長)

교수(敎授)

성심으로 수도하여 가르칠 사람

(誠心修道可以傳授員爲敎授)

도집(都執)

위풍을 갖추고 기강을 세워 다스릴 사람

(有風力明紀綱知境界員爲都執)

집강(執綱)

시비를 밝혀 기강을 잡을 사람

(明是非可執紀綱員爲執綱)

대정(大正)

공평을 유지하며 근후한 사람

(持公平勤厚員爲大正)

중정(中正)

능히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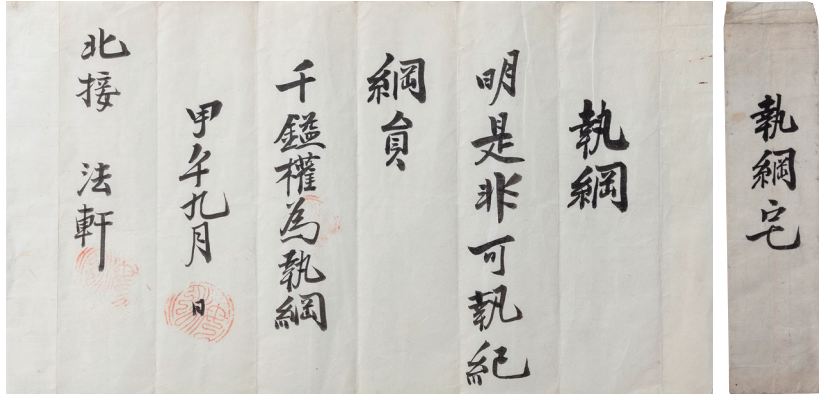
(能直言剛直員爲中正)

천일권 집강 임명장

千鎰權執綱任命狀

Certificate of appointment for Cheon Il-gwon

최시형崔時亨 | 1894년 | 44.7×25.1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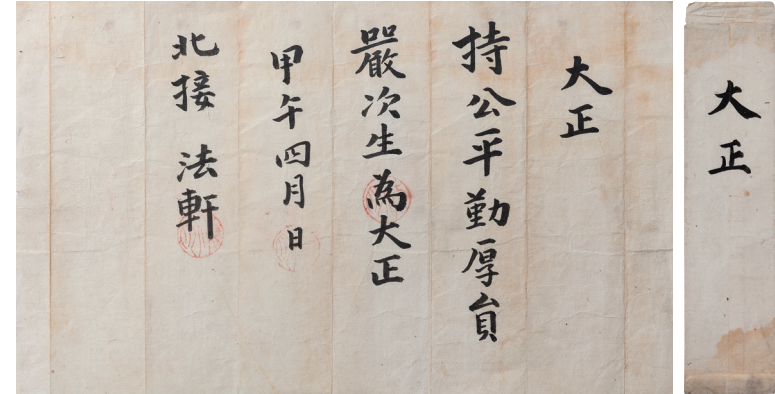
1894년 9월에 천일권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엄차생 대정 임명장

嚴次生大正任命狀

Certificate of appointment for Eom Cha-saeng

최시형崔時亨 | 1894년 | 42.7×26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4월에 엄차생을 대정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정성영 접사 임명장

鄭聖英接司任命狀

Certificate of appointment for Jeong Seong-yeong

최시형崔時亨 | 1894년 | 41×31.5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8월에 정성영을 접사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동학농민군의 명단》

「명록」, 「나주 명록」, 「합평 갈동 명록」 이 세 건의 문서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남겼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명록」은 다른 두 건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갑오 7월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45명의 성명·자·본관·거주지·나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나주(羅州) 거주로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 7명은 합평(咸平)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주 명록」은 「명록」이 작성된 후 2개월이 지난 1894년 9월에 작성되었고, 45명에서 74명으로 증가하였다. 「명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명록」 속 합평 거주자들은 이어서 등장하는 「합평 갈동 명록」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나주 명록」 단계에서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직책이 부여된 점이다. 전체 74명 중에서 18명을 제외한 56명에게 직책이 부여되었다. 이 직책은 바로 동학 교단의 접주, 접사, 도금찰, 교장, 교수, 금찰, 도집, 집강, 대정, 중정, 봉도 등이다. 1894년 9월은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로, 이때 직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명록

名錄

List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동학농민군 | 1894년 | 19×20.9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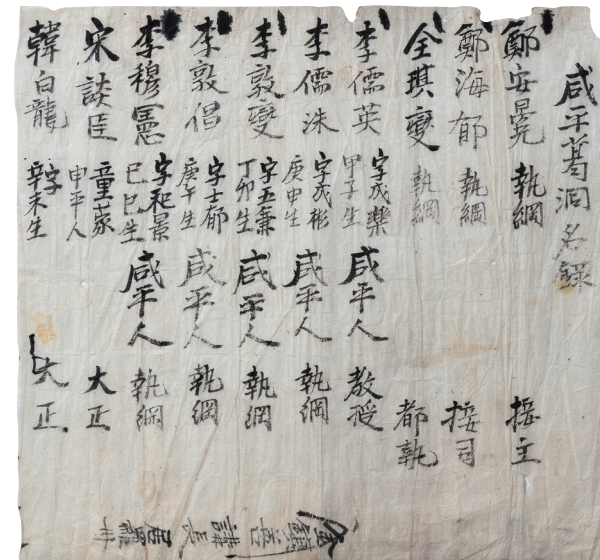
1894년 7월 전라도 나주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명단이다.

함평 갈동 명록

咸平葛洞名錄

List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from Galdong, Hampyeong

동학농민군 | 1894년 | 25×23.1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9월경 전라도 함평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명단이다.

나주 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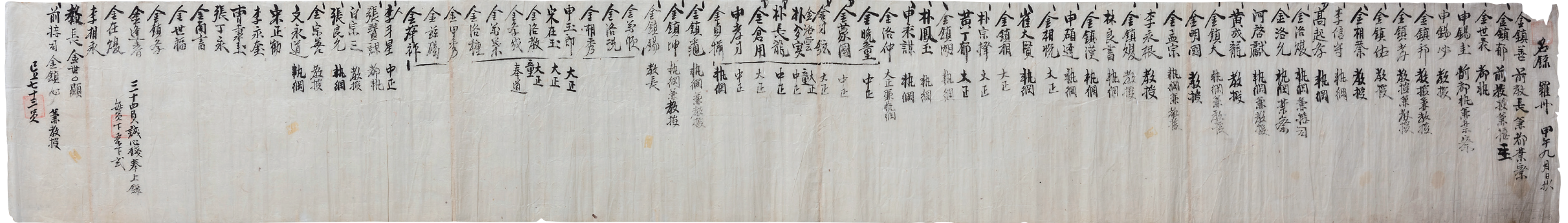
羅州名錄

List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from Naju

동학농민군 | 1894년 | 159.8×23.1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9월 전라도 나주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명단이다.



자주와 항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일본의 침략 의도가 노골화되자, '반일 투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자주와 자립을 위한 항전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식 및 시국관이 담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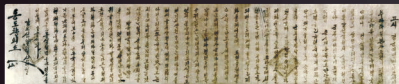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 상서
국사편찬위원회



동도창의소 고시
국사편찬위원회



홍선대원군 효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갑오군정실기
국립고궁박물관



춘당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남정일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복궁 무단 점령과 청일전쟁 개전, 내정간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일본의 침략 의도는 점차 노골화되었다. 이에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반일 투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재기포를 결심한 전봉준은 9월 초에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동학농민군을 재조직하였다. 곧이어 동학교단의 총기포령 이후 10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상하기 시작하였다. 충청도·강원도·경기도·경상도 등 전국의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자주와 자립을 위한 항전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관군과 관료들이 일본군에 협조하여 동학농민군을 탄압하는 골육상전의 비극이 연출되었다.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인식과 시국관 등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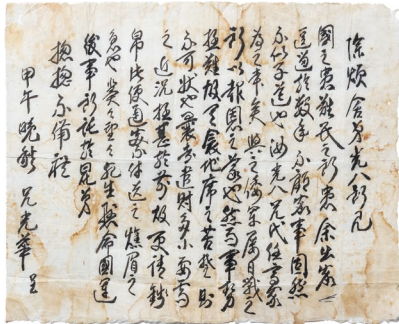
유광화 편지

劉光華簡札

Yu Gwang-hwa's letter

유광화 劉光華 | 1894년 | 29×24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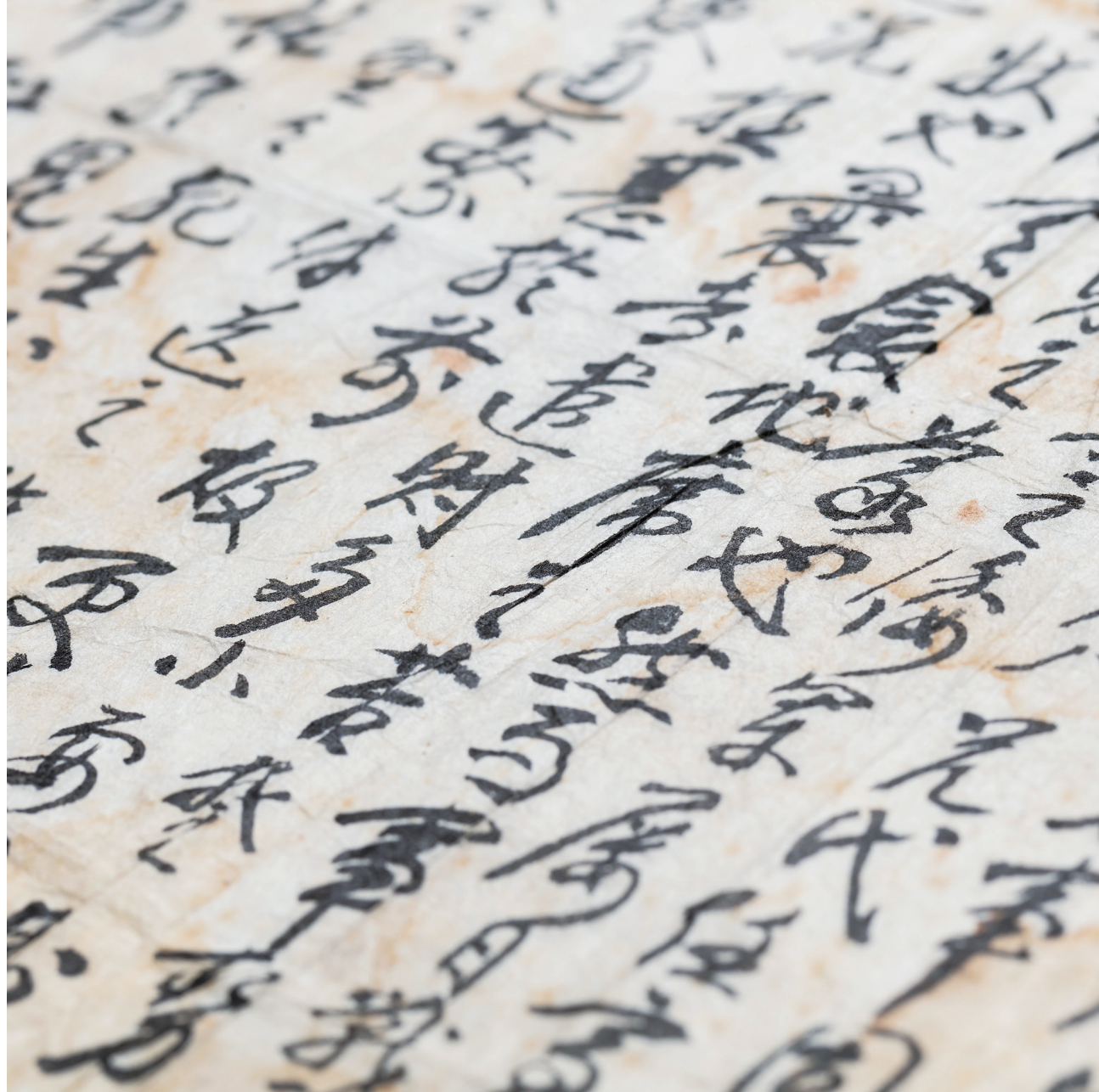


전라도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접주급 지식인 유광화(劉光華)가 고향 집에 있는 동생 광팔(光八)에게 보낸 한문 편지이다. 유광화는 1858년 4월 15일 나주 다도에서 출생한 인물로, 유몽렬과 김해김 씨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편지는 전투가 진행되던 1894년 10~11월경(늦가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보면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사를 돌보지 않고 몸을 바친다'라는 뜻이 거듭 드러나고 있어, 당시 어떠한 의식을 갖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번거로운 인사는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함께 왜군과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전에 보내 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또 한 번 돈과
비단을 청하니
살펴 보내주길 바라네.
매우 급한 일이라네.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일세.
뒷일은 동생에게 부탁하겠네.
예를 갖추지도 못했네.

갑오년 늦가을 형 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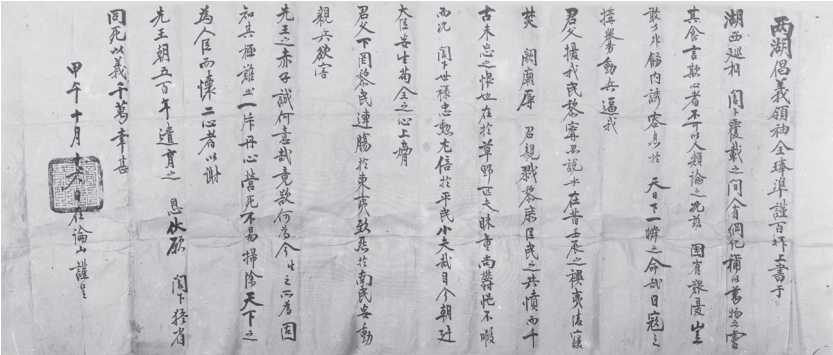


전봉준 상서

全瑋準上書

Petition submitted by Jeon Bong-jun

전봉준全瑋準 | 1894년 | 16.5×12cm(유리건판) | 국사편찬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반일투쟁을 시작하던 전봉준은 1894년 10월 16일경 논산에 주둔하였다. 이때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의 자격으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상서이다. ‘함께 의를 위하여 죽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박제순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여 몇 년 뒤 을사오적이 되었다. 인장을 보면 전서로 ‘제중의소(濟衆義所)’라고 새겨져 있다.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의로운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의 지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동도창의소 고시

東道倡義所告示

Proclamation distributed by the leadership of the Donghak Peasant Army

동학농민군 | 1894년 | 16.5×12cm(유리건판) | 국사편찬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한 전봉준 부대는 노성으로 후퇴하여 봉화산에 진을 쳤다. 11월 12일 동도창의소의 이름으로 경군(京軍)과 영병(營兵), 이교(吏校), 시민(市民 상인)에게 순한글의 고시문을 내걸어 척왜척화(斥倭斥和)를 위해 동심합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생명과 생존을 위한 골육상전의 중지 및 평화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하여 현재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 유리건판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경군(京軍) 조선 시대, 서울의 각 영문(營門)에 소속되어 임금의 호위를 주로 맡아보던 군사
영병(營兵) 감영에 딸린 군사
이교(吏校) 조선 시대, 관아의 하급관리인 이서와 군교를 합하여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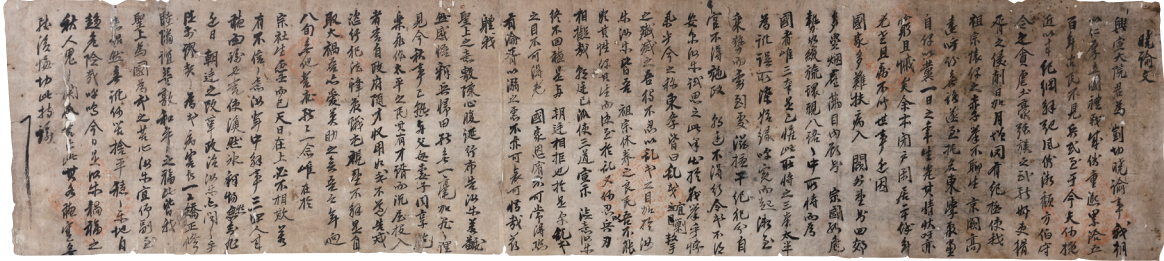
흥선대원군 효유문

興宣大院君曉諭文

Document of Persuasion by Heungseon Daewongun

조선 정부 | 1894년 | 117×27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894년 8~9월에 걸쳐 전국 각지에 전달된 문서로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즉각 해산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 효유문에 대해서는 문서 자체의 진위 문제, 흥선대원군의 원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흥선대원군과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부 간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Record of correspondence and reports exchanged with various institutions after Shin Jeong-hee was appointed as the chief military commander

조선 정부 | 1895년 | 21.1×32.5cm | 국립고궁박물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1894년 9월 22일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임명하고,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하였다. 이후 12월 27일 폐지할 때까지 각급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보고서를 모아 놓은 기록이다. 1~9책에는 1894년 9월 22일에서 12월 28일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의정부 및 순무영의 공문, 지방관의 첩보 등이, 10책에는 영에 머문 병사, 출진한 병사 및 공적에 대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 국왕 경호를 맡는 호위청과 경군(京軍) 병영인 장위영·용호영 등을 망라하여 구성했으며, 각 감사 및 군현 관아의 지방관 등을 지휘하였다.

춘당록

春塘錄

Collection of Writings by Yang Pyong

양평楊平 | 1900년대 | 18.5×27.5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여산(礪山 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유생 양평(楊平)의 시문(詩文)을 모은 자료집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소모사 이건영(李建永)의 종사관으로 활동한 그는 갑오음(甲午吟), 학술변(學術辨), 봉지감격사(奉旨感激辭), 위소모초격사(爲召募草檄辭), 호남열읍통문사(湖南列邑通文辭) 등의 글을 통해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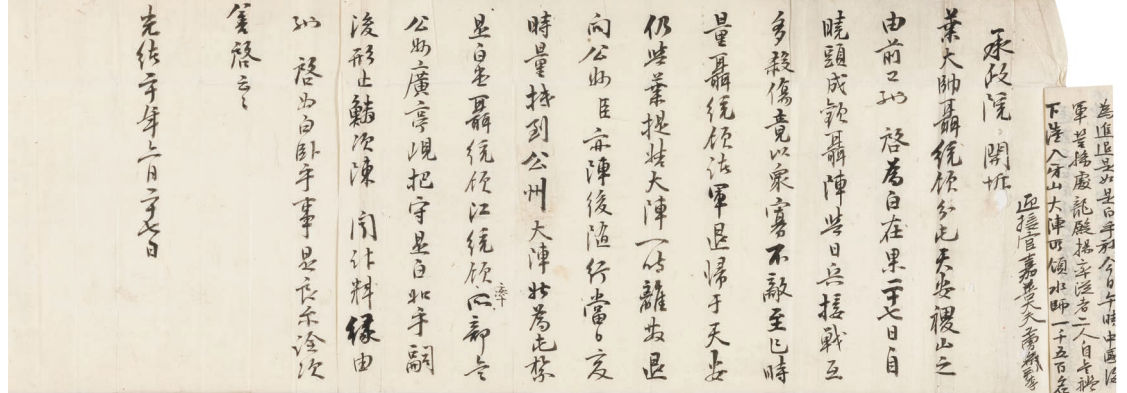
남정일기

南征日記

Diary of Qing Soldiers' Movements and Presence

이중하李重夏 | 1894년 | 19×19.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 후기 문신 이중하(李重夏)가 1894년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청군 영접관으로 있으면서 기록한 일기이다. 청군 접대를 위해 아산과 온양을 비롯한 인근 읍의 물력을 동원한 내역, 청군의 사정과 병력 및 장비, 6월 27일 성환 전투에서 청군이 패배하여 천안 등지로 퇴각한 상황 등이 서술되어 있다.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

술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억압적·차별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하였던 모습이 담긴 기록

한달문 옥중 편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회성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모사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당정토인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갑오군공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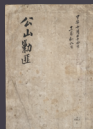
전라도각읍소회동도수효급
장령성명명록성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산유고
국립중앙도서관



공산초비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의’는 곧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정당한 길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이 보여준 민주적 질서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한 그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술한 진압에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정신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으로 계승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뿌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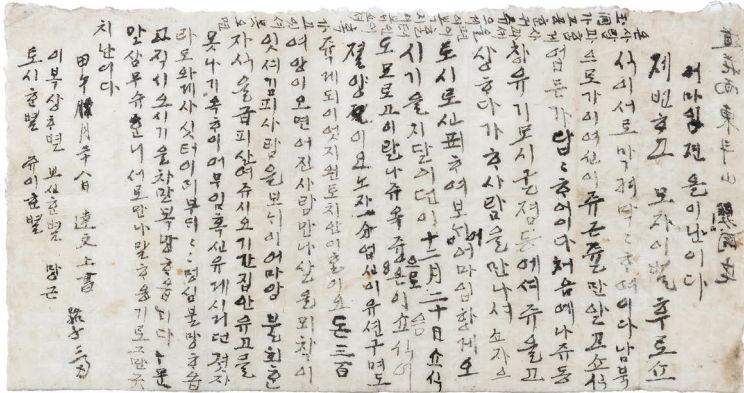
한달문 옥중 편지

韓達文獄中簡札

Letter from Prison by Han Dal-mun

한달문韓達文 | 1894년 | 40×21.2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전라도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접주급 인사 한달문(韓達文)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나주 감옥에 있던 중에 고향집의 모친 쌍동댁(雙同宅) 박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이다. 작성일자는 1894년 12월로 추정되며, 당시 한달문의 나이는 36세였다. 그는 전라도 남부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나주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한달문은 돈 300냥이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 '부디부디 명심 불망하옵고 즉시 오시기를 차망복 망 하옵니다'라고 애원하고, 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의복·보신(명주옷)·토시·망건' 등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하여 희소가치가 높고, 당시 사회상 및 옥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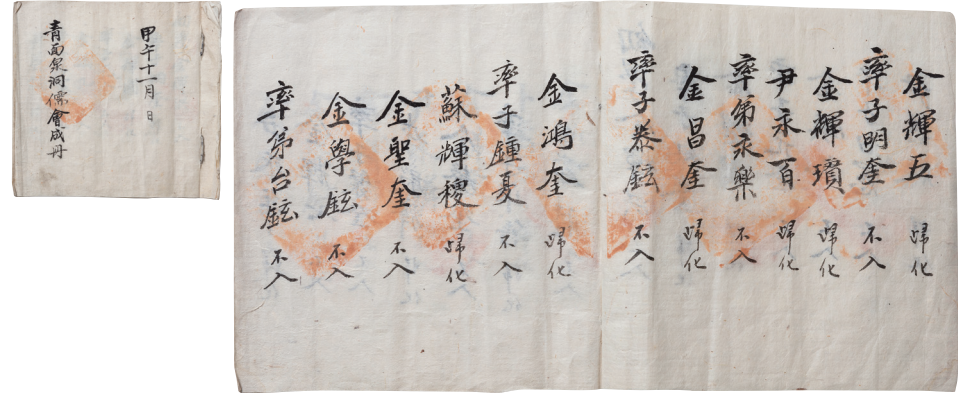
유회성책

儒會成冊

Records of Conservative Intellectual Activity

청면 천동 유회 | 1894년 | 21×19.5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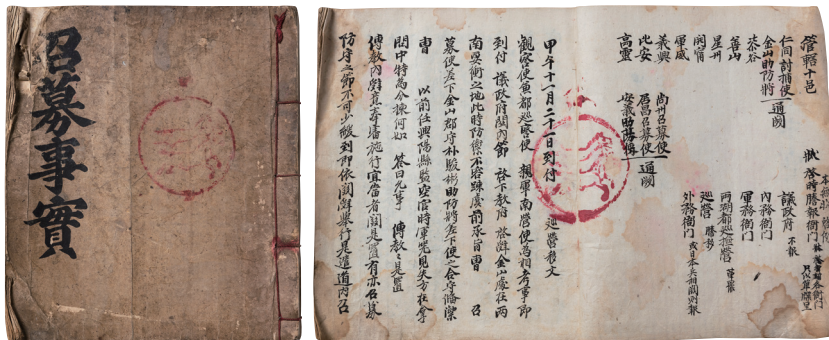
표지에 갑오년 11월 일 청면(靑面) 천동(泉洞) 유회성책(儒會成冊)이라고 써진 이 문서는 10쪽으로 되어있다. 청면 천동은 현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로 추정되며, 관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동 유회(儒會)의 이회장(里會長) 김학현(金學鉉)이 현감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보인다. 속오군 4명을 포함한 29가호의 아버지와 아들 39명을 '불입(不入)'과 '귀화(歸化)'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1894년 11월의 문서임을 고려하면 불입자는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귀화자는 혁명에 참여한 후 귀화했다는 뜻이다. 각 군현에서 동학농민군 가담자를 귀화시키고 마을 단위의 오가작통 강화와 화적에 대비한 무기까지 준비하였던 시기였기에, 가호별로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소모사실

招募事實

Chronological record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local soldiers recruiting office and other agencies

조시영曹始永 | 1894~1895년 | 27×30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김산(金山 현 경상북도 김천시) 소모사(招募使) 조시영(曹始永)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지휘하면서 관련 사실을 모은 기록이다. 1894년 11월부터 1895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김산 소모영에서 생산한 문서와 각급기관에서 김산 소모영에 보낸 문서를 낱자순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조시영은 1894년 12월 21일 김산 16면의 약정에게 전령을 보내 동학농민군 진압의 방향과 규칙을 제시하였는데, 향촌사회의 통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시영이 이끄는 소모영의 관할 구역은 김산을 비롯해 인동, 칠곡, 선산, 성주, 개령, 군위, 의흥, 비안, 고령 등지였다. 한편 상주와 거창에도 소모영을 두었으며, 안의에는 조방장을 두었다. 위의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에 통문(通文)과 관문(關文)을 보내 협조와 지원을 알렸고, 임금에게 장계(狀啓)할 때에 등보(騰報)한 상급 기관으로는 의정부 내무아문 군무아문과 양호도순무영과 순영(巡營, 경상도 감영)이 있었다. 여기에 일본군과 관련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외무아문에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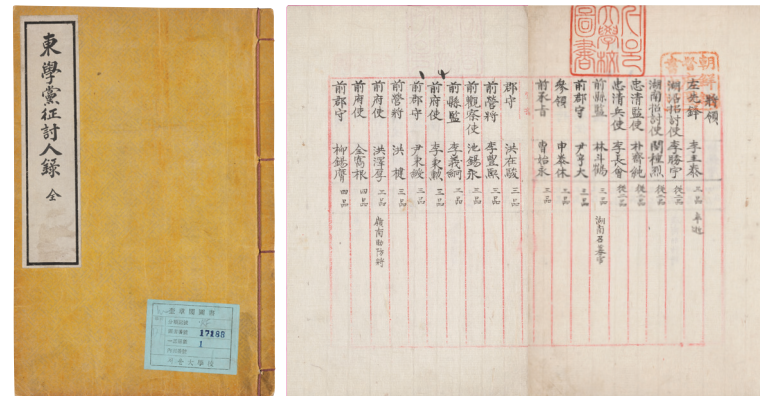
소모사(招募使) 조선 시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던 벼슬

동학당정토인록

東學黨征討人錄

Record of individuals wh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군부 | 1894년 | 19.5×29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에 공을 세운 정부군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인물 766명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이다. 명단 구성을 보면 주책(籌策, 4명), 장령(將領, 25명), 주모(主謀, 17명), 공략(攻略, 309명), 의려(義旅, 347명), 정탐(偵探, 64명) 등 6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름과 직위 및 역할을 기재하였다. 이들은 전관리·출신·유학·진사·한량(한림)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이며, 의려의 경우 전관리와 양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명단의 출신과 직위 등을 통해서 1894년 당시 향촌구성원의 반농민군 활동과 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갑오군공록

甲午軍功錄

Record of individuals wh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군부 | 1894년 | 18×26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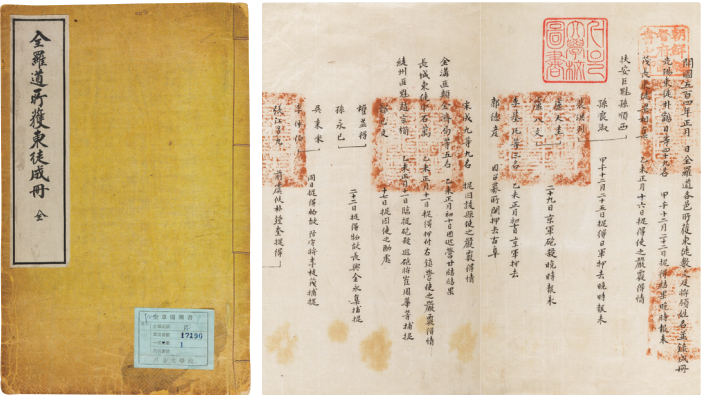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에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戰功을 기록한 자료다. 순무사 신정희(申正熙), 중군 허진(許璉), 군부협판 권재형(權在衡), 호남초토사 민종렬(閔種烈), 호서초토사 이승우(李勝宇), 충청감사 박제순(朴齊純), 전라감사 이도재(李道宰), 청주병사 이장회(李長會) 등 모든 관군 장교와 의려(義旅)·보부상·민간인·병정의 순서로 총 410명의 인물에 대한 성명과 직책 및 품계를 적고 이어 관련 공로를 짧막하게 기록하였다. 『동학당정도인록』 자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당시 각 지역에서 활동한 반농민군의 성격과 활동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竝錄成冊

Report by Commander Min Jong-yeol, listing the names and numbers of captured Donghak members in Jeolla-do Province and the details of confiscated goods

민종렬閔種烈 | 1895년 | 21.5×34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5년 1월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농민군의 성명 및 수효와 그 처리 사항, 그리고 노획품 및 노획자 이름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주요 인물의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구체적인 처리 요지를, 그밖에는 수효와 처리 사항만을 적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규모와 지역별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초토사(招討使) 변란이 있을 경우 이를 평정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의산유고

義山遺稿

Anthology of Moon Seok-bong

문석봉文錫鳳 | 1934년 | 19×27.5cm | 국립중앙도서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경상도 현풍(玄風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향리 출신으로 현감까지 지낸 문석봉(文錫鳳)의 시문집이다. 그는 1894년 11월 양호소모사(兩湖召募使)로 충청도 일대의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그가 충청감사 등에게 보고한 공문에는 2차 봉기 이후 진잠, 금산, 청산, 옥천, 영동, 용산 일대의 동학농민군 활동, 특히 1895년 2월 대둔산 마천대의 동학농민군을 일본군과 합세하여 토벌한 내용 등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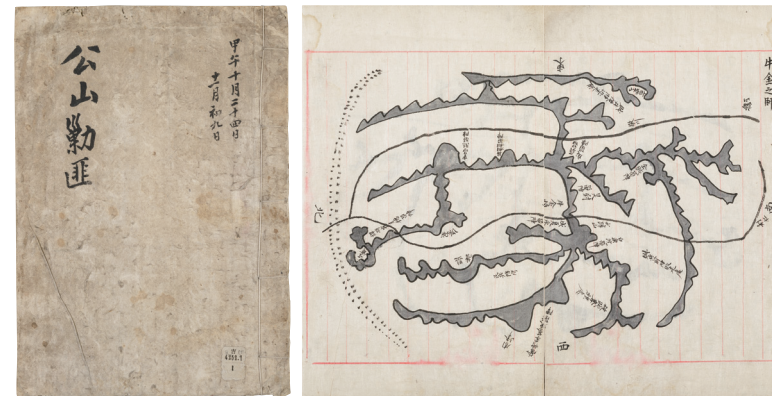
공산초비기

公山剿匪記

Document on the Ugeumchi Battle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government forces

조선 정부 | 1894년 | 25×35.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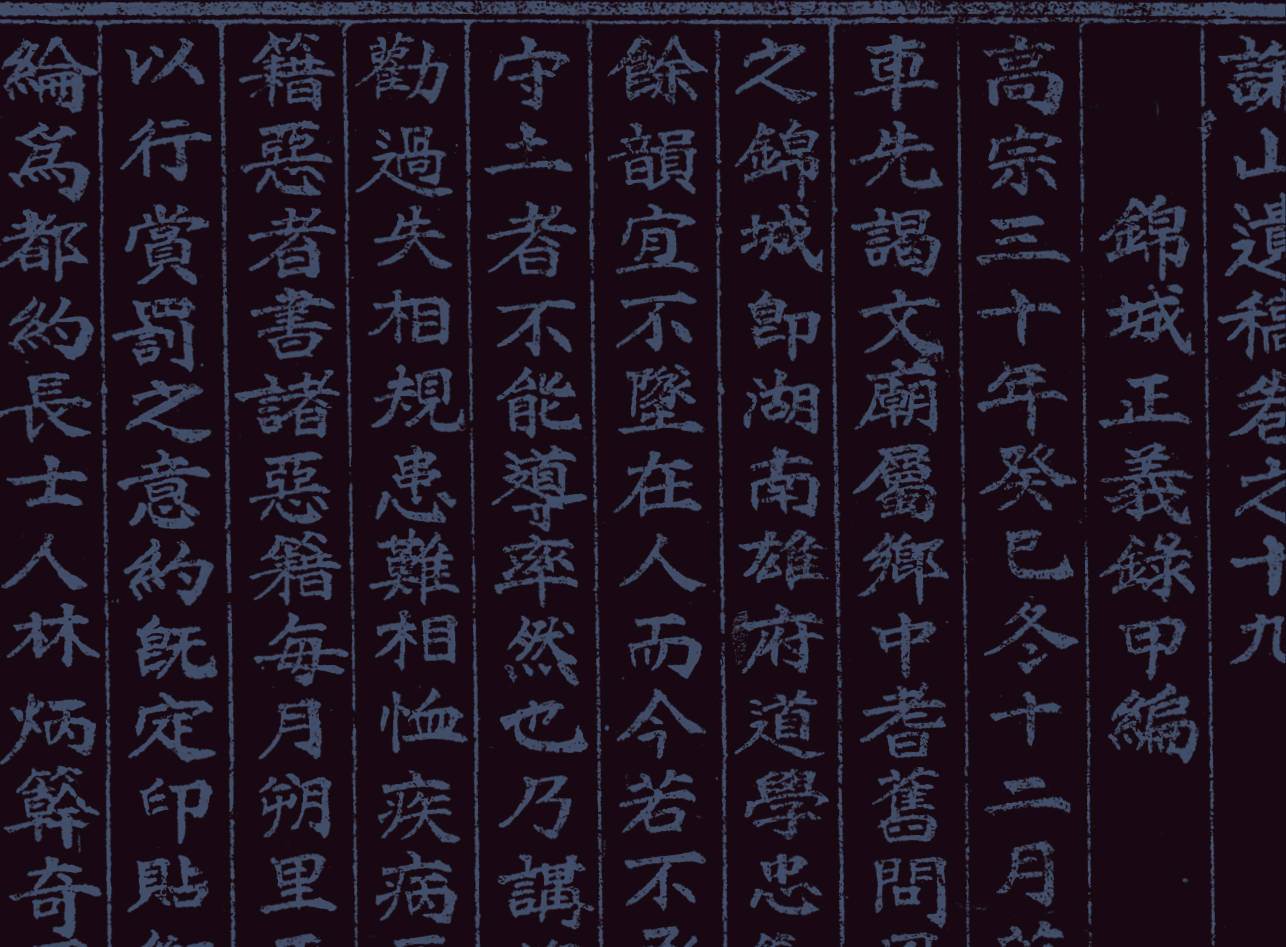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9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개된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전투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필자는 장위영(壯衛營) 참모관(參謀官) 구완희(具完喜)이며, 작성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인지역(利仁之役)」, 「효포지전(孝浦之戰)」, 「우금치지사(牛金峙之師)」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인지역」에는 이인 일대 관군의 배치를 표시한 지형도가 그려져 있다. 순무선봉장 이규태(李圭泰)가 10월 상순 장위영군을 이끌고 공주로 내려오는 과정과 목천 세성산 전투상황을 기록했다. 「효포지전」에도 앞부분에 지형도를 첨부하고, 효포 일대에서 성하영(成夏永), 백락완(白樂浣)이 동학농민군과 벌인 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우금치지사」에 수록된 지형도에는 견준봉을 중심으로 한 감영군의 위치와 경천, 이인 등지에 배치되어 있는 관군 및 일본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진격과 전투 상황 뿐만 아니라 관군 및 일본군의 전략 및 전술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순회전시 지역별 출품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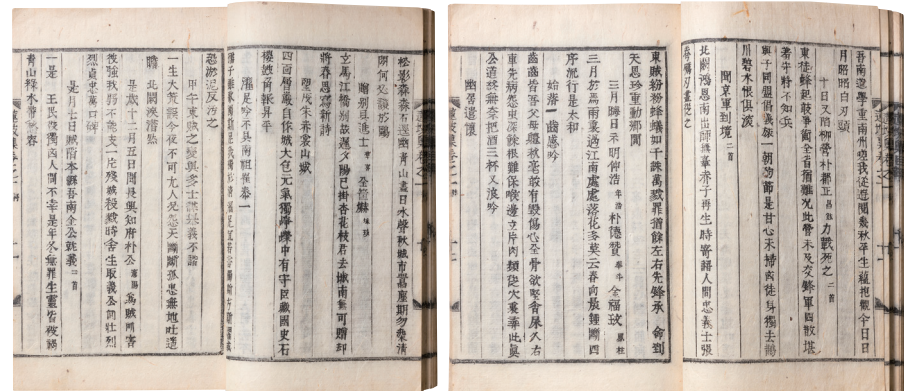
연파집

蓮坡集

Collection of Writings by Kim Byeong-hwi

김병휘金炳輝 | 1913년대 | 20×31cm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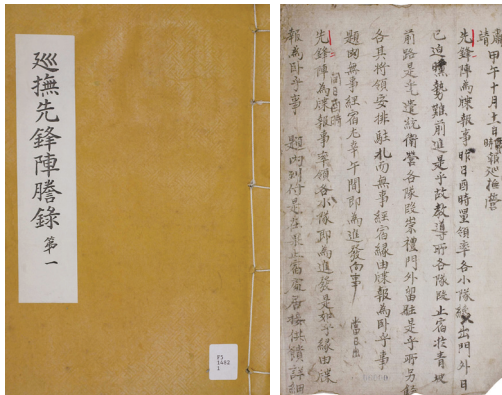
전라도 강진 유생 김병휘(金炳輝)의 문집이다. 그는 송병선(宋秉瑋) 문하에서 배웠으며, 장흥에서 민보군 활동을 주도한 김한섭(金漢燮) 등과 교류하였다. 향리에 서당을 개설, 후학을 가르치다가 지역 유생들과 뜻을 합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민보군을 결성하였다. 1894년 12월 7일~10일 강진현과 강진 병영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민보군을 결성하는 과정과 국가의 수치를 씻고, 유도(儒道)를 지키자는 「창의동맹문(倡義同盟文)」이 실려 있다.

순무선봉진등록

巡撫先鋒陣膽錄

Collection of official correrpondence
between General Lee Kyu-tae and government agencies

이규태李圭泰 외 | 1894~1895년 | 21×31cm | 고려대학교 도서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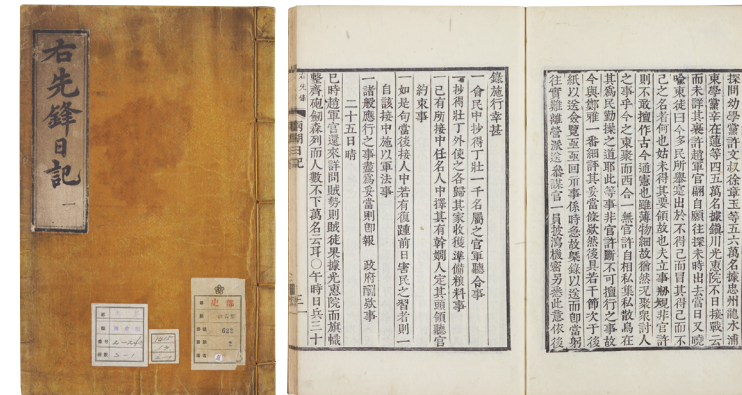
양호도순무영 선봉장 이규태(李圭泰)가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각처와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 놓은 자료이다. 이규태가 순무영에 보고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변, 각 지역 지방관과 주고받은 문서, 장 위영 부영관 이두황과 친군 경리청 부영관 성하영 등이 이규태에게 보고한 문서 및 그에 대한 지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양호우선봉일기

兩湖右先鋒日記

Diary from Battlefield by Commander Yi Du-hwang

이두황李斗瑬 | 1894~1895년 | 22.6×34.8cm |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양호도순무영 예하 우선봉장 이두황(李斗瑬)의 진중일기(陣中日記)이다. 1894년 9월 10일부터 1895년 2월 18일까지의 일기체 기록으로, 우선봉진의 이동, 효유, 진압, 처벌, 전투, 다른 관군 및 일본군과의 합동 작전, 중앙 정부 및 지방관과의 연락, 군수품 조달, 휘하 병정의 명단 등을 볼 수 있다. 이두황의 부대는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대승리한 것을 비롯해서 해미 전투, 서산 전투, 논산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퇴한 동학농민군을 추격하여 전라도로 넘어가 남원에서 승리를 거둔 후, 곡성, 구례, 광양, 순천, 보성, 장흥 등 전라남도 각 군현을 순행하였다.

겸산유고(금성정의록)

謙山遺稿(錦城正義錄)

Anthology of Yi Byeong-su

이병수李炳壽 | 1946년 | 19.5×28.5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전라도 나주 유생 이병수(李炳壽)가 나주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갑, 을, 병 3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의 시문집 『겸산유고(謙山遺稿)』 권19-20에 수록되어 있다. 갑편(甲編)에는 고부농민봉기와 나주의 수성 사실, 2차 봉기 후 순화중, 최경선, 오권선의 나주 공격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을편(乙編)에는 주로 을미년에 이루어진 관계 문건을 모아 동학농민군 토벌에 대한 군공을 적었다.

난파유고

蘭坡遺稿

Anthology of Jeong Seok-jin

정석진鄭錫珍 | 1913년 | 19×30c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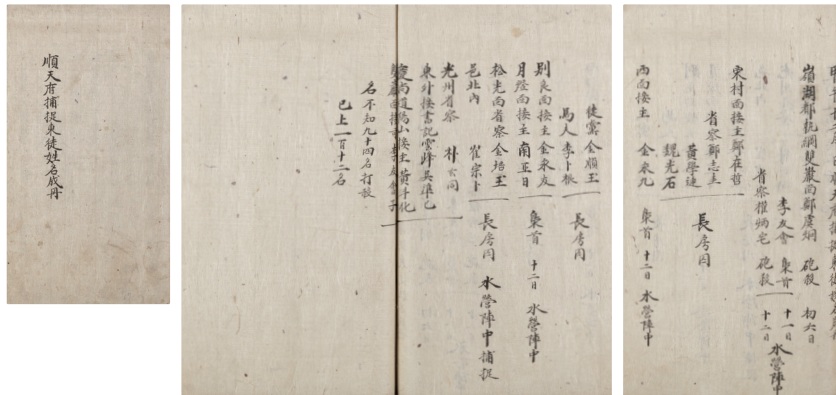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 수성도통장(守城都統將)을 지낸 정석진(鄭錫珍)의 문집이다. 나주지역 동학농민군을 토벌했던 내용을 소상히 기록한 토평일기(討平日記) 및 행장(行狀), 동학농민군 격퇴의 공을 기리는 나주 유생들의 글 등이 실려 있다. 이는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과 함께 나주와 광주를 기반으로 순화중, 최경선, 오권선 등이 이끌던 동학농민군과 나주목사 민종렬(閔鍾烈), 영장(營將) 이원우(李源祐), 도통장 정석진이 이끌던 수성군 사이에 벌어졌던 나주성 공방전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List of Donghak Peasant Army captured in Suncheon:
Names, Dates, and Follow-Up Procedures

통리아문 | 1894년 | 18.9×29.7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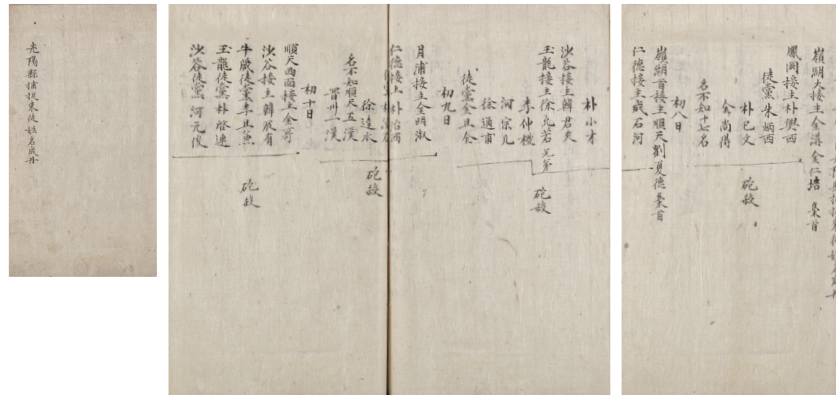
1894년 12월 전라도 순천부에서 잡힌 동학농민군의 성명과 체포 날짜, 그리고 처리 사항 등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잡책철(雜冊綴)』에 편철되어 있으며, 1책 3면이다. 쌍암면(雙巖面)의 영호도집강 정우형(鄭虞炯)을 비롯하여, 동촌면(東村面)과 서면(西面), 별양면(別陽面) 등의 접주와 성찰 및 광주성찰, 경상도 양산접주 등 18명에 대한 체포 및 포살(砲殺), 효수(梟首), 장방수(長房囚) 등 처리 사항을 적고 있다. 이밖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동학농민군 94명을 타살했음을 알 수 있다.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List of Donghak Peasant Army captured in Gwangyang:
Names, Dates, and Follow-Up Procedures

통리아문 | 1894년 | 18.9×29.7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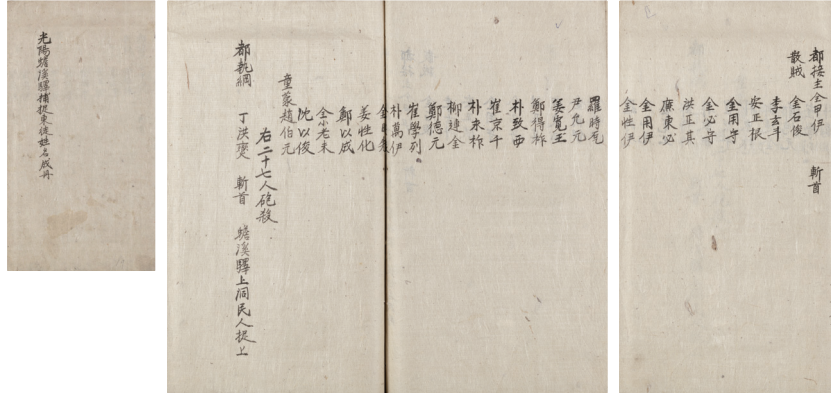
1894년 12월 전라도 광양현에서 잡힌 동학농민군의 성명과 체포 날짜, 그리고 처리 사항 등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잡책철(雜冊綴)』에 편철되어 있으며, 1책 8면이다. 금구 출신의 영호대접주 김인배(金仁培), 순천 출신의 영호수접주 유하덕(劉夏德)을 비롯하여, 광양현 봉강(鳳岡), 인덕(仁德), 사곡(沙谷) 등지의 접주, 그리고 순천, 구례, 경상도 진주, 삼가, 곤양 등지에서 온 동학농민군 89명에 대한 처리 사항을 적고 있다. 김인배와 유하덕은 효수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포살되었다.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

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List of Donghak Peasant Army captured in Seomgyeyeok, Gwangyang: Names, Dates, and Follow-Up Procedures

통리아문 | 1894년 | 18.9×29.7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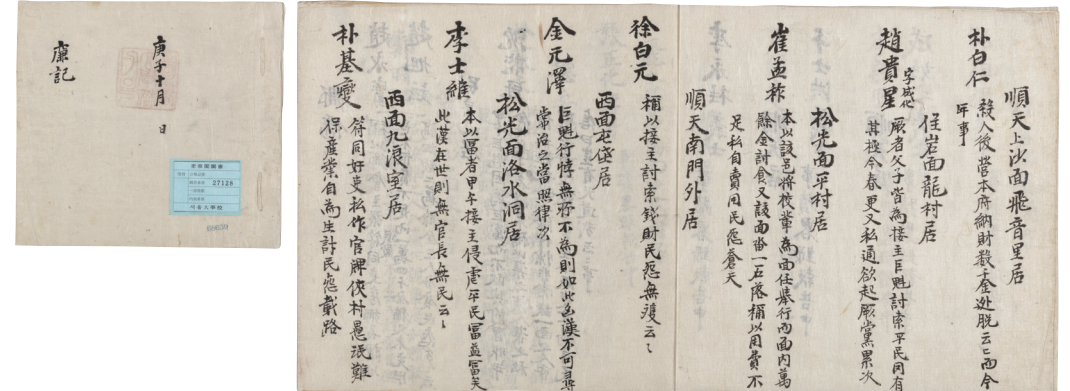
1894년 12월 10일 전라도 양양현 섬계역(蟬溪驛) 상동(上洞)의 주민들이 동학농민군을 잡아 생명과 체포 날짜, 그리고 처리 사항 등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잡책철(雜冊綴)』에 편철되어 있으며, 1책 3면이다. 참수된 도접주 전갑미(全甲伊), 도접강 정홍선(丁洪善) 외에 김석준(金石俊)부터 동몽(童蒙) 조백원(趙伯元)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군 27명을 포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섬계역은 광양에 속한 섬거역(蟬居驛)으로 섬진강 연안의 교통 요지였기에, 동학농민군이 많이 몰려들었다.

염기

廉記

List of Filial Piety and Local Gentry in Jeollanam-do and Exploitat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조선 정부 | 1900년 | 23.6×22.1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900년 10월 전라도 순천·여수·광주·영광·담양 등지의 효자(孝子)와 토호(土豪), 향유(鄕儒)들의 성명 및 민간에 대한 토색(討索)을 엮은 내용이 담긴 자료이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민간 토색을 일삼고 치부(致富)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고자 한 관군 등이 작성한 것이기에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에필로그

-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속에 꾀꾀 숨어 있던 인간 존중과 평등, 정의, 인권, 자주, 평화 등의 가치를 찾아 기록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가 빛을 보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1894년 이후에도 동학농민혁명은 반란으로 평가되어 그 기록물의 가치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동학농민군 후손들도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관련 기록물을 깊이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속에 숨겨진 가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31년에 걸친 기록 투쟁, 더 나아가 기억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 결과 동학난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고, 185건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순회전이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이자,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소도록 칼럼

민주, 평등, 인권 향한 민주주의 정신의 기억 저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2023년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조선 후기 민중 속에서 싹튼 민주,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 빚어낸 저항이자,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건(13,132면)의 기록물을 말한다. 2010년에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2015년 6월 2일 각계의 전문가와 유족 등 관계자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추진 작업을 시작했고, 그 실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가 맡았다. 학술대회와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학술연구분과회의를 개최하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한 위원회는 2015년에 문화재청(現국가유산청)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특별전시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부각하는 작업을 지속한 뒤 2017년 6월에 다시 문화재청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유네스코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등재가 중단돼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했고, 2023년 5월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임명장과 회고록 등 동학농민군 기록, 동학농민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 및 진압군의 공문서와 보고서 등 조선 정부 기록, 민간인의 문집 및 일기 등 민간 진압 기록, 개인이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기록한 개인 견문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종이 매체(일부 사진 포함)로서 주로 전통 한지에 기록한 문서 및 책자(공문서, 재판기록, 일기, 문집, 회고록, 임명장)이며,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하여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규

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11개 기관이 소장·관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에 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라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신선한 민주주의 실험이기도 했다. 19세기 당시까지 세계 어디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는 없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이 변명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놓았으며, 유사한 외국의 반제국주의·민족주의·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세계사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은 중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일전쟁이 촉발되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오랜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됐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어떻게 민중이 주체가 되어 역사를 보편적 가치, 즉 평등, 민주, 인권, 정의의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기억의 저장소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이다. 이를 위해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재기록물 특별전시와 순회전시, 등재기록물 해제집 발간,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저 반란이나 민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민중들의 고귀한 정신과 노력의 산물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전시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예연구사
조한빛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 1 인류의 기억을 공유하는 세계기록유산
- 2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구성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2024년 11월 5일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막했다. 2025년 4월 13일까지 약 5개월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 이 전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함께 주최했다. 기념재단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소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185건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중 40여 점을 한 장소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글에서는 특별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의 기획·구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동학농민혁명과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활성화 방안 및 인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 확산 수단으로써 준비한 순회전시의 지향점 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특별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한 주요 목표는 동학농민혁명과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기록물은 그 내용과 의미를 보다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활용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전시기획자로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성격·가치·의미와 세계기록유산 사업 관련 내용 등을 고찰하고,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 방법을 모색했다.

1. 인류의 기억을 공유하는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정식명칭은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이다. 즉,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잘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주요 목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의 적절한 보존, 접근성 강화, 기록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증진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진정성·독창성 및 대체불가성·세계적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즉, 본질과 유래가 정확한 진품이자,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훼손될 시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이어야 한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세계기록유산으로는 뉴질랜드의 ‘1893년 여성 참정권 탄원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 영국의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 카르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20개(2025년 기준)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등이 있다.

기록유산이란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글, 그래픽, 시청각, 디지털 등)로 표현될 수 있는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한다. 그 범위는 단독 기록뿐만 아니라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도 포함하며, 세분하면 ①문자로 기록된 필사본, 도서, 신문, 안내 홍보물 등 ②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그림,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③시청각 자료인 음반, 레코드, 사진, 영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구성

전시는 어떠한 오브제가 지닌 뜻의 전체 또는 한 부분에 관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기법으로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는 곧 전시기획자와 관람객 간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때

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시기획자는 단순히 오브제를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가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전시공간 자체를 복합적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만 한다. 즉, 관람객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브제인 전시물과 상호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 기술과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¹

이에 따라 특별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은 전시물, 전시공간, 관람객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구성하고자 했다. ‘특별’하다는 용어는 의도성과 목적의식 및 비밀상성의 의미를 분명히 지닌다. ‘특별한’의 사전적 의미는 ‘평범하지 않은 부류의,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은’ 내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을 뛰어넘는’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의미는 ‘특별전시’의 속성이 되기도 한다.² 그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여타 전시 대부분이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전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민주, 평등, 인권, 자유, 정의, 평화 등 오늘날까지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인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전시의 메인 컬러 역시 ‘혁명’, ‘투쟁’, ‘저항’ 등의 키워드를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로부터 초월해, ‘평화’, ‘생명’, ‘신뢰’ 등의 키워드와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시실 입구부터 통로, 진열장 등 곳곳에 기록물을 상징하는 스퀘어(Square, 네모) 형태로 공간을 연출해,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본 전시는 총 4부로 나누어 기획했으며,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 집강소를 세우다’, 3부 ‘자주와 향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와 함께 프롤로그, 에필로그, 아카이브 존, 교육체험 존 등으로 구성했다.

¹ 이난영, 『박물관학입문』, 삼화출판사, 1996, 24쪽.

² 마이클 벨처 저, 신자은·박윤옥 역,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예경, 2006, 81쪽.

특별전시 구성과 내용 및 대표 전시물

※ 복제본 및 패넌 이미지 포함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구성		내용 및 전시물
프롤로그	혁명의 기록을 세계에 새기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조선 후기 봉건적 질서 하에서 거둬되는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투로 피폐해진 백성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변화와 개혁을 지향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 : 사발문룡, 무장포고문, 취어, 석남역사, 남원 종리원사 부 동학사, 양호전기, 양호초토등록, 순교약력, 전봉준 공초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 집강소를 세우다	집강소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동학교단 내에서도 포접제를 운영하며 여러 직책을 부여하는 등 협치와 상생을 도모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 : 동학사(초고본), 전봉준 판결선고서, 계초존안, 김창모 교수 임명장, 천일권 집강 임명장, 임차생 대정 임명장, 박순도 중정 임명장, 명록, 나주 명록, 함평 갈동 명록
3부	자주와 향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일본의 침략 의도가 노골화되자, ‘반일 투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자주와 자립을 위한 향전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식 및 시국관이 담긴 기록 : 유광화 편지, 동도창의소 고시, 전봉준 상서, 흥선대원군 효유문, 갑오군정실기, 춘당록, 남정일기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	술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억압적·차별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 : 한달문 옥중 편지, 전신존근, 갑오군공록, 동학당정도인록, 윤희성책, 소모사실, 거의록, 취의록, 전라도각읍소회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 의산유고, 공산초비기
아카이브 존	총 20건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디지털화	정성영 접사 임명장, 나동환 교장 임명장, 이수방 접주 임명장, 사통, 상서, 향약장정, 토비대략, 이복영 일기(남유수록), 김약재 일기, 겸산유고(금성정의록), 홍우전 물침첩, 순무사 정보첩, 죄인군물성책, 물금첩기, 금번집략, 홍양기사, 고성부 총해록, 양호후선봉일기, 정배안, 염기
에필로그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다	민주·평등·인권의 가치가 담긴 세계기록유산 : 1893년 여성 참정권 탄원서 - 뉴질랜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1789, 1791) - 프랑스, 도미니카공화국의 인권 투쟁 및 저항(1930~1961)에 관한 기록유산 - 도미니카공화국,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 카르타’ - 영국,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 - 독일 등
교육체험 존	1894 기억 저장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전국 지도 스티커 활동지, 공산초비기 스탬프 활동지, 오늘 하루 기록하기 포토박스, 기록 카드 쓰기 등

대부분 고문서류, 전적(典籍)류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전통 한지 등에 기록한 문서 및 책자 형태이다. 이와 같은 기록물의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 관람객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가치, 의의 등을 전달하기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람객 스스로 추체험(追體驗)과 감정이입을 하며, 사유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방대한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했다. 유물 디스플레이, 패널, 실사 출력 등 기본 전시기법과 더불어 영상(황토현 전투 애니메이션, 집강소 미디어 파사드, 한달문 옥중 편지 내레이션) 제작, 아카이브 존 설치, 교육체험 프로그램(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전국 지도 스티커 활동지, 공산초비기 스탬프 활동지, 오늘 하루 기록하기 포토박스, 기록 카드 쓰기) 등의 콘텐츠로 만들어 동학농민혁명의 뜻과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III 나오는 말

전시는 관람객에게 오감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경험이자, 전시물을 자유롭게 관찰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하고 즐거운 기회이다.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회전시를 기획했다. 한정된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특정 공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전시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한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남원다움관 순으로 찾아가 보다 많은 관람객을 만나게 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지마다의 개별적 상황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또한 순회전시의 가변적 속성에 맞춰 구조물 등을 모듈화해 설치, 해체 및 이동, 재설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설계했다.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서울·경기권으로까지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개별적·단편적·평면적인 기술(記述)로만 남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다층적·다각적·입체적으로 전달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한다.

특별전시 공간 사진



전시실 입구



프로로그 혁명의 기록을 세계에 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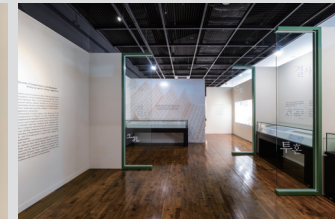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집강소 미디어 파사드



2부 혈투와 상생의 기록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



한달문 옥중 편지 내레이션



우금치 전투 포토 존



아카이브 존



에필로그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다



교육체험 존

교육체험: ‘1894 기억 저장소’, 나의 오늘을 기록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김지연

기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작은 기록들이 모여 하나의 ‘기억 저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기억을 함께 나눈다. 기록은 과거의 사건과 삶을 알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까지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 역사적 과정이 담긴 ‘기억의 저장소’이다. ‘기억의 저장소’가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 미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시 관람과 함께 관람객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재현하는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기록물은 그 자체로도 큰 가치를 지니지만, 보다 많은 이들에 의해 읽히고, 쓰이고, 그려지고, 재현될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며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 때문이다. 즉, 직접 기록해 보는 경험은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며, 역사적 의미를 깊이 내면화하도록 이끈다.

본 순회전시와 연계해 마련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기반으로, 관람객 스스로가 문자, 그림, 사진, 지도 등 다양한 기록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구성했다. 전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체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1894 기억 저장소’는 총 4개의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접 기록을 남기고 재현하며, ‘나의 오늘’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러 기록 체험을 소개하는 기록키트 샘플과 체험자들이 완성한 기록카드를 함께 전시하여 체험의 즐거움을 더하고자 기획했다.

1. 지도에 남기는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지도 완성하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지도 활동지 앞면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아,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기록물의 가치와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뒷면에는 동

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와 기록물이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반봉건을 외치며 1차 봉기를 일으켰고, 이후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과 내정간섭에 반대하여 일어난 2차 봉기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음을 의미한다. 체험자는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찾아 스티커를 붙이며 지도를 완성한다. 이를 통해 전국에 걸친 혁명의 발자취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내포된 의미를 한층 깊이 새길 수 있다.

2. 도장으로 남기는 기록: 공산초비기 스탬프 찍기

『공산초비기』에 수록된 지형도 위에 4개의 도장을 찍어, 1894년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투지를 따라가며 기록물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공산초비기』는 1894년 공주 지역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 전투 상황을 관군의 시각에서 기록한 자료로, 동학농민군과 관군, 민보군, 일본군의 위치가 표시되어 당시 전략과 전술을 엿볼 수 있다. 활동지에는 『공산초비기』에 수록된 우금지사(牛金之師) 지형도의 한자 지명과 군대 명칭을 한글로 옮겨 표기하였다. 체험자는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전투를 벌인 지역의 순서대로 이인, 효포, 우금치 지역에 스탬프 도장을 찍으며 전투의 흔적을 따라가게 된다. 『공산초비기』는 관군의 기록으로 동학농민군이 패배를 담고 있으나, 그 이면의 치열한 투쟁을 기억하게 한다. 단순한 스탬프 찍기 놀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의 의지와 행동을 되새기는 체험이다.

3.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기록: 오늘 하루 기록카드 작성하기

체험자는 오늘 하루 겪은 경험과 생각, 감정을 기록카드에 글과 그림 등으로 표현하며, 기록의 주체가 되어 직접 역사를 만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과거의 기록물을 접하는 동시에, 오늘 나의 하루를 직접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며 기록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체험자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학농민혁명과 자신의 삶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기록카드 앞면에는 포토박스로 찍은 사진을 붙이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뒷면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그림 도안에 색칠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완성한 기록카드는 소장하거나 ‘혁명의 기록, 우리의 기억’ 게시판에 걸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체험자는 ‘내 이야기’로 기억을 남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다.

4. 사진으로 남기는 기록: 즉석 기록사진 촬영하기

동학농민군 복장과 소품을 직접 착용하고 포토박스로 사진을 찍어 오늘 하루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활동이다. 체험자는 과거 동학농민군이 되어보는 추체험(追體驗)과 사진 촬영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생생하게 저장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포토박스는 라벨 스티커 용지를 사용해 많은 체험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출력된 사진은 '오늘 하루 기록카드'에 붙여 간직할 수 있다. 최근 전시와 팝업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젊은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 기록키트 전시 및 기록카드 게시·공유

다양한 기록 체험을 소개하는 기록키트 샘플과 체험자들이 완성한 기록카드를 함께 전시한다. 기록키트는 동학농민혁명박물관 교육체험 '기록지킴이 미션' 수행 과정에서 진행된 옛날책 만들기, 전시 연계 기록카드 작성, 기록지킴이 임명장 수여 등 다양한 기록 활동을 모은 것이다. 여러 지역을 이동해가면서 운영하는 순회전시의 특성을 살려, 우리 재단 및 박물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효과적인 홍보 수단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또한, '혁명의 기록, 우리의 기억' 게시대는 체험자가 기록카드를 걸어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체험자는 전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기억을 더욱 풍성하게 공유할 수 있다.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역사적 사건과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이와 같은 기록의 가치를 관람객 스스로 체감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전시와 교육체험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경험을 선사한다. 다양한 기록 방식을 활용한 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결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되며 그 가치가 미래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scribed in the World

발행일
2025년 8월 18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 063-530-9400 | F. 063-538-2893 | www.1894.or.kr

ISBN 979-11-990487-6-8

전시

총괄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전시총괄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전시기획 조한빛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예연구사
전시보조 김지연 이현제 정윤영
전시자문 김양식 배향섭 신영우 왕현종 유바다 조재곤
전시시공 디자인, 아침

소도록

소도록총괄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소도록기획·글·편집 조한빛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예연구사
소도록자문 김양식 배향섭 신영우 왕현종 유바다 조재곤
교정 김지연 이현제 정윤영

자료협조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 소도록의 저작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도록에 실린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